안타까운 죽음 부른 '황혼 질병'

화순서 투병 아내 둔기로 치고 남편 투신
광주선 70대 환자 신병 비관 병원서 자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노인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5시30분께 화순군 화순읍 모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주민 문모(82)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문씨의 아내 백모(67)씨도 머리에 상처를 입고 신음 중인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이다.

문씨의 아내는 당초 이 아파트에서 문씨와 함께 살았지만 3년 전 뇌졸중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병간호를 위해 순천 아들 집에서 요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아내없이 홀로 지내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잦은 병치레와 치매 증세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최근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 아내와 아들, 며느리, 손자 등과 재회한 문씨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때린 후 자신도 아파트 13층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모 병원에서 나모(70)씨가 병실 침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나씨는 5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과 치매 증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씨가 추석을 맞아 퇴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4시께에는 무안군 해제면 강모(여·82)씨의 집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시각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던 강씨가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앞서 지난 13일 밤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서모(60)씨의 집에서 서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서씨의 조카(40)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서씨가 간경화와 당뇨, 담석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병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전남 추석 연휴 교통사고 '얼룩'

중국인 유학생 참변 등 2명 사망·160명 부상

추석 연휴기간 잇따른 교통사고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160명이 다쳤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국서 유학온 여대생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다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 12일 밤 10시20분께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 앞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중국인 유학생 송모(여·21)씨가 광주에서 나주 방향으로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운전자 이모·여·42)에 치였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진 송씨는 광주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1t 트럭에 다시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송씨와 함께 길을 건너던 동료 유학생 묘모(여·21)씨도 트럭 백미러에 어깨 등을 부딪쳐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 치치하얼대에 재학중인 송씨 등은 동신대와 치치하얼대가 2003년 맺은 '2+2 복수학위제'에 따라 동신대 한국어학과에서 관련 학위를 따기 위해 지난 3월 교환학생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주시내에서 쇼핑을 한 뒤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동신대측은 숨진 송양의 빈소를 대학 기숙사 1층에 마련하고, 유가족들과 추후 절차를 논의중이다.

15일 오전 10시께 무안군 현경면 북무안IC 부근 도로에서 강모(44)씨가 운전하던 산타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조모(34)씨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와 충돌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강씨 가족 3명과 조씨 등 모두 4명이 다쳤다.

앞서 14일 오전 9시10분께 순천시 덕월동 청암대 앞 교차로에서 홍모(54)씨가 운전하던 무쏘 승용차가 앞서가던 김모(25)씨의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로 모두 7명이 다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경 집회 원천봉쇄 엇갈린 판결

대전지법 "공무 집행"…광주지법 "과잉 행위"

법원이 경찰의 상경집회 원천봉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상경 시도를 막는 경찰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과잉행위로 봐야 할 것인지를 놓고 법원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5일 집회 참가를 위한 상경 시도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최모(36)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만 인정,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장소인 서울로부터 300㎞ 이상 떨어진 광주에서 집회가 열리기 6시간30분 전에 상경 시도를 막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월 24일에도 집회 참가차 상경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원 이모(36)씨 등 5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결국, 불법·폭력 집회 자체는 법의 처벌을 받지만 집회 참가를 먼 곳에서부터 봉쇄하는 게 경찰의 정당한 대응인지를 두고 법원 내에서도 확연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두 사건의 판결에 불복,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

불교계 종교 편향 반발
오늘 광주서 삼보일배

지난 10일 대구 동화사에서 범불교대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둘러싼 지역 불교계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불교계는 광주지역 네티즌과 함께 16일 오후 5시30분 광주 우체국 앞에서 종교차별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삼보일배를 진행한다.

이들은 "종교를 차별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뒤 옛 삼복서점 앞에서 출발해 충장파출소~현대예식장~원각사까지 약 1㎞에 걸쳐 삼보일배를 한다. /이은미기자 emlee@

5·18 고문 후유증 사망
故 최석군씨 장례식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28년동안 각종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고 최석군(45·광주시 남구 백운동)씨 <본보 12일자 6면>의 장례식이 지난 13일 치러졌다.

최씨의 유해는 1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모 병원에서 발인된 뒤 가족들과 5·18 유공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국립 5·18묘지에 안장됐다.

최씨는 5·18 이후 겪은 고문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 9일 오전 입원중이던 알코올 병동에서 빠져 나오려다 추락사했다. /강필상기자 kps@

고향의 정 듬뿍 안고 다시 일터로

비록 3일간의 짧은 추석 연휴였지만 고향은 역시 푸근했다. 15일 오후 광주역을 찾은 귀경객들이 고향의 따뜻한 정을 가득 안은 채 환한 표정으로 귀경길에 나서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10월은 범죄 조심 작년 17만6천건 최다

5월과 10월 등 좋은 계절에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의 '2007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총 183만6천496건의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17만6천112건(9.6%)이 10월에 발생했다.

또 5월이 17만1천561건(9.3%)으로 뒤를 이었으며, ▲6월(16만3천392건·건 8.9%) ▲11월(15만9천200건·8.7%) 등의 순이었다.

휴가철인 7월(15만7천510건)과 8월(15만7천867건)의 범죄발생 비율도 각각 8.6%로 비교적 높았지만, 겨울철인 12월(7.8%), 1월(8.2%), 2월(6.6%)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요일별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가장 많은 27만8천751건(15.2%)이 발생했다. 이어 ▲목요일 27만5천767건(15.0%) ▲화요일 27만2천862건(14.9%) ▲수요일 27만2천834건(14.9%) 등의 순이었고, 일요일은 22만2천278건(12.1%)으로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

나우찬

〈7603〉 김종두

대종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채직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119 구급차서 출산 '한가위 경사'

쌍나팔

○…30대 산모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날 119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딸을 순산해 화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석날인 지난 14일 오전 8시11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산모 이모(여·34)씨가 문흥 119안전센터 구급차를 타고 남구 주월동 모 산부인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진통을 호소해 함께 타고 있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여아를 순산.

○…산모 이씨와 새로 태어날 딸은 산부인과에 무사히 도착해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119 구급대원 덕분에 건강한 딸을 순산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

○…광주 북부소방서 문흥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추석날 이씨의 경사스런 소식을 전해듣고 직원 모두가 크게 반겼다"고 설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